

효성, 섬유사업 부진에 중공업 호조

현대증권, 스판덱스 마진감소로 섬유는 둔화 ... 중공업 수주 55% 증가

현대증권은 8월28일 효성에 대해 3/4분기에도 펀더멘털 개선 흐름이 지속될 전망이라며 투자 의견 <매수>와 적정주가 9만6000원을 유지했다.

박대용 연구원은 “스판덱스(Spandex) 마진 감소로 섬유부문 둔화가 예상되나 전체 영업이익의 40%를 차지하는 중공업 부문이 주도하는 영업실적 개선이 2009년까지 이어질 것”이라고 전망했다.

또 “하반기 중공업 부문 수주액은 약 9600억원으로 2008년 전체적으로는 전년대비 55% 증가한 1조9000억원으로 전망되며, 수주 후 매출인식까지 보통 6-12개월이 소요된다”고 설명했다.

그리고 “최근 원화대비 미국 달러환율이 상승하고 있는데, 수출비중이 70%를 웃도는 효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”며 “연평균 환율이 10원 상승하면 약 100억원의 영업이익 증가효과가 있다”고 분석했다. <저작권 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 · 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08/08/28>